



필리핀

경제성장세 지속, 그러나 일부 불안요인 잠재

필리핀의 2002년 경제성장률은 농업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당초 기대치를 웃도는 4.6%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3/4분기의 3.7%에서 4/4분기에는 5.8%로 후반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금년에는 성장률이 3.8%로 낮아진 후 내년에는 수출 회복이 뒷받침될 경우 다시 4%대의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나, 여기에는 각종 개혁정책의 성과 여부와 대외 부문의 변수들이 잠재해 있다.

금년도 성장은 미국 경기 등 대외요인에 달려 있어

작년 농업 부문은 3/4분기의 부진에서 탈피해 4/4분기 중 엘니뇨 현상에 따른 기상악화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6.1%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건설업 및 제조업의 성장은 지난해 전체로 4.1%의 다소 부진한 성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년과 내년의 경제전망은 농업 부문의 성장 지속 여부 외에도 수출 경기가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EU 지역으로의 수출 전망은 다소 어둡지만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출은 2002년 중 미국으로의 전자제품

<표>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 달러

	1999	2000	2001	2002e	2003f
경제성장률	3.4	4.0	3.2	4.6	3.8
소비자물가상승률	6.7	4.4	6.1	3.1	3.6
재정수지/GDP	-3.8	-4.1	-4.0	-5.3	-5.0
경 상 수 지	7,910	8,459	4,150	2,475	1,300
수 출	34,210	37,298	31,243	34,151	39,756
수 입	29,252	30,377	28,480	35,259	40,958

자료: EIU, *Country Reports*, 2003.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미국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춤한 상태이다. 지난해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상품수지가 1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특히 10월부터는 미국 서부항만의 파업사태로 수출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출품목별로는 제2의 수출품목인 기계통신장비의 경우 역내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꾸준한 수출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섬유류의 경우는 최근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흑자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경상수지는 작년의 24억 달러에서 금년에는 13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해외근로자의 송금액 급증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재정수지 적자 해소와 금융개혁 등의 문제점 존재

매년 악화되고 있는 재정수지는 경제회복 기조가 아직 뚜렷하지 못한데다 내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크게 호전되기 어려워 보인다. 작년 10월까지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연간 목표인 1,300억 페소를 크게 상회한 1,876억 페소로 추정되어, 예산관리상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세수감소 원인으로는 이자소득세 감소, 유류 및 주류 매출감소로 인한 물품세 감소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금년에도 2,000억 페소(GDP의 4.7%) 규모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나, 내년으로 임박한 선거와 관련된 예산지출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

제로는 이보다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4%로 가정할 경우 금년도 세수규모는 GDP 대비 10%로 예상되는데, 이는 작년의 11%보다 낮은 것이어서 1997년 이후의 하향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세수 부족은 비효율적인 조세행정과 복잡한 조세체제, 관료사회의 만연한 부패와 기업들의 법인세 탈루 관행 등으로 인해 세원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금융부실화가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금융권의 부실채권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를 통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동 법안은 부실자산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다. 동 법안의 통과로 부실자산이 원활하게 정리된다면, 2002년 6월 말 현재 총여신의 17%를 상회하는 부실자산의 부담을 안고 있는 필리핀 금융기관들의 부실여신 비율이 1년 이내에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산구조가 건전해진 금융기관들의 여신제공 활성화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분야로의 외국인투자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테러사태 이후 사회불안 속에 아로요 대통령의 출마 여부는 가변적

지난 3월 4일 남부 민다나오의 한 공항에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하여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 사건에는 이슬람 반군

단체인 아부사야프 또는 모로회교자유전선(Moro Islamic Liberation Front)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사건 직후 모로전선의 일부 인사가 체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필리핀 최대의 이슬람 반군 단체인 모로전선은 동 테러사태와의 관련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태는 미국과 필리핀이 민다나오 지역의 이슬람 반군에 대한 합동작전 취소결정을 내린 뒤 며칠 후 일어난 것으로, 현지를 방문한 아로요 대통령은 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반군 진압을 위한 합동 군사작전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그 동안 활동을 중단하였던 공산군(New Peoples Army)도 최근 군·경에 대한 기습공격 등 파상적인 공세를 강화하여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대미 관계에도 미묘한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미군 주둔에 관해 의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내년 선거에서도 쟁

점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1991년에 반환한 군사기지를 되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편, 아로요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정치적 분열과 혼란의 방지를 이유로 불출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현재 뚜렷한 대권 선두주자가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정치가 상당히 혼란스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아로요 대통령이 추진중인 각종 경제개혁 프로그램들이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재출마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카톨릭 단체 및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어, 앞으로 경제개혁 추진, 과세 강화, 부패 척결 등의 주요 현안에서 성과를 거두거나 경제가 금년 말부터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경우 다시 출마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종 호】